

THE PIANO

No.347 2011. 02 The Best Publication in Piano Music 피아노음악

Simone Dinnerstein

<빌보드> 클래식 차트 1위, 바흐 음반으로 만난다

특집 · 피아노 협주곡의 세계-사무엘 바버

인터뷰 _ 프랑스의 피아노 명교수 이딜 비레

토크토크 _ 피아니스트 한지은과 남민지·김상애 학생

지상공개레슨 _ 슈베르트의 소나타 D.664 in A Major 3악장 &
스크리아빈의 12 Etudes No.12 Op.8

9 771227 241002 02
ISSN 1227-2418

Bach, A Strange Beauty! 시모나 디너스틴

"바흐 음악에는 '무엇인가'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클래식 연주자나 다른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었어요. 곡 자체에 이러한 힘이 있다는 것은 바흐가 얼마나 위대한 작곡가인지 깨닫게 합니다."

바흐, 음악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작곡가

오랜 시간 바흐는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의 전유물이었다. 지극히 주관적이면서도 바흐 음악의 본질을 정확히 관통하는 그의 해석은 스페셜리스트를 넘어 '골드베르크 변주곡'이란 단어를 만들어내기까지 했다. 공감하기 힘들 정도로 독특한 연주를 선보이기도 했지만, 바흐와 관련된 피아니스트로는 지금까지도 굴드를 따라올 자가 없다. 평생 바흐 연구에 몰입한 로잘린 무렉의 뒤를 이어 1980년대에는 안드라스 쉬프가 바흐 스페셜리스트로 조명을 받았다. 그는 독일의 악보 출판사 헨레와 계약을 맺고 바흐 스페셜 에디션 악보를 작업할 만큼 '바흐 음악의 정석'이었다. 18장의 바흐 주요 건반음악을 녹음한 안젤라 휴이트나 14년 만에 라이프치히 바흐 국제 콩쿠르 우승자로 등장한 마르틴 슈타트펠트도 굴드로부터 이어진 계보를 잇는 연주자로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바흐 스페셜리스트가 등장했다. 바로 미국 출신의 피아니스트 시모나 디너스틴(Simone Dinnerstein)이다.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주목 받은 인물. 뉴욕 링컨 센터의 'Great Performing 시리즈' 초청 연주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의 공연이 매진될 정도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는 연주자다.

여러 무대에서 다양한 레퍼토리를 소화하고 있지만 그녀의 관심은 꽤 오랫동안 바흐를 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그녀의 이름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2005년 뉴욕 카네기홀 데뷔무대에서 이 곡을 연주한 후 <Time>지로부터 "신선함과 신비함을 동시에 갖추었다"는 평을 받았다. 2년 뒤에는 음반으로 발매해 빌보드 클래식 차트 1위에 오른 것은 물론, <New York Times>와 <LA Times>가 선정한 '2007 최고의 앨범'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실 첫 음반으로 바흐를 선택하는 것은 연주자로서 상당한 모험이다. 극적인 표현이나 낭만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것도, 모차르트처럼 대중성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일정한 부담을 안고 시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너스틴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바흐 음악의 진정성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몇 년 동안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면서 어떻게 연주해야 하는지, 그리고 해석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게 되었습니다. 녹음으로 그 과정의 순간을 담는다면 의미 있는 작업이 되겠더군요. 사실 처음부터 바흐에 관심이 있던 것은 아니었어요. 다른 연주자들과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심오하고 어려운 작곡가였지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의 음악을 연주하다 보니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클래식 연주자나 다른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었어요. 곡 자체에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 놀랍더군요."

바흐로의 회귀

골드베르크 변주곡 이후 작업한 음반 '베를린 콘서트'도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디너스틴은 다시 바흐로 돌아왔다. 소니 레이블을 통해 '바흐 : 이상한 아름다움' (Bach : A Strange Beauty)이란 타이틀의 음반을 출시한 것이다. '이번에도 바흐인가?'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바흐에 대한 그의 특별한 관심을 생각해 본다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물일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번 음반의 타이틀이다. 고도로 수학적이고 구조적인 바흐 음악에 아름다움이란 단어도, 이상하다는 표현도 그다지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

"프란시스 베이컨의 '비율적으로 완벽한, 절대적인 아름다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일반적으로 바흐의 음악은 완벽한 대칭과 구조적인 형식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일정한 패턴에서 이탈하는 흐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마디 안에서 작은 리듬의 강세를 주면서 시퀀스를 변화시키고, 갑자기 강박을 쉼 수 없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처럼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음악이야말로 바흐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처럼 일반적인 관념에서 벗어난 아이디어는 바흐 음악에 대한 디너스틴의 해석과 연관된다. 대부분의 연주자들과 음악학자들이 결론 내린, 혹은 악보에 적힌 그대로가 아닌 이면을 봐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작곡가가 말하고자 한 진짜 의도를 말이다.

"작곡가 필립 라서(Philip Lasser)는 언제나 음악에는 마디가 없다고 말하는데, 여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바흐 음악에 자주 등장하는 엇박을 보면 실제로 엄격한 박자나 마디에 갇혀 있지 않거든요. 악보란 음악적인 생각을 그대로 그려놓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특별한 음악 지식이 없는 바흐의 악보에서는 그 이면의 것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결국, 어떻게 음악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것이지요. 악보는 여기에 도움을 줄 뿐,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디너스틴은 이번 음반에 '건반 협주곡 제1번 BWV 1052' '영국 모음곡 제3번 BWV 808' '건반 협주곡 제5번 BWV 1056', 부조니 편곡의 '주 예수여, 당신을 소리쳐 부르나이다', 캠프 편곡의 '자, 기뻐하라, 사랑스런 주의 성도들이여', 헤스 편곡의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을 수록했다. 바흐가 자신의 작품을 다시 작업했듯이 피아니스트들이 편곡한 작품들을 수록해 동일한 흐름을 주고자 했다고.

협주곡에는 Kammerorchester Staatskapelle Berlin이 참여했는데, 독특하게도 지휘자 없이 작업했다. 디너스틴은 이에 대해 바흐가 원하는 연주 방식을 고심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한다. 바흐의 건반 협주곡들에서 피아노는 쉬는 부분이 있는 오케스트라와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해야 하기에 독주자에게 책임감이 부여되고, 결국 하나의 실내악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프란시스 베이컨의 ‘비유적으로 완벽한, 절대적인 아름다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일반적으로 바흐의 음악은 완벽한 대칭과 구조적인 형식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일정한 패턴에서 이탈하는 흐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마디 안에서 작은 리듬의 강세를 주면서 시퀀스를 변화시키고, 갑자기 강박을 셀 수 없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처럼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음악이야말로 바흐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Simone Dinnerstein



이렇게 음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화가인 아버지(Simon Dinnerstein)로부터의 영향이 상당 부분 차지한다. ‘예술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그리고 ‘테크닉 너머에 눈여겨볼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디너스틴이 생각하는 예술의 출발점이 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미술관에 드나들었고 특별한 작품을 보기 위해 여행을 다니기도 했어요. 그렇게 새로운 장소에 가면 아버지께서는 인상적인 작품을 스케치북에 똑같이 그려보도록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일종의 모방 작업을 통해 예술적인 영감을 주려고 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의 작품에 관해서도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예를 들어, ‘The Fulbright Triptych’는 고급 예술과 저급 예술이 조화롭지 못하게 배치되어 있어 충돌하는 요소가 있지만 상당히 회화적이란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전혀 그런 부분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의외의 답변을 듣게 됩니다. 즉, 그림을 보는 사람은 다각도로 해석을 내놓지만, 정작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지요. 과연 분석이 작품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과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해 생각해 되더군요.”

연주자에게는 모든 곳이 무대다

디너스틴은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피터 제르킨을, 맨해튼 음대에서 솔로몬 미코프스키를 사사했다. 피아니스트로서의 커리어를 만들어 가는 한편, 그는 다른 연주자들과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의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가지며 다양한 관객과 만나는 것이다. 피아티고르스키 재단의 후원으로 요양원과 학교 커뮤니티 센터는 물론이거니와 루이지애나 주립 교도소에서 최초로 클래식 연주회를 진행했다. 재단의 프로그램을 통해 활동하던 그녀는 여기에서 나아가 직접 공연을 기획하기에 이른다. 뉴욕시 공립학교와 연계해 대중에게 개방하는 Neighborhood Classics 공연 시리즈를 만든 것. 그녀는 이 시리즈를 남편 제레미가 교사로 재직하고 아들 아드리안이 재학생인 브루클린의 P.S.321 학교에서 시작해 ‘학부모회를 위한 기금 마련’이란 취지에 적극 동참하는 자세를 보였다.

“전통적인 클래식 연주회도 좋지만 청중과 가까이에서 호흡하는 이런 무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관객은 일반적인 공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을, 연주자는 친밀한 분위기에서 교감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다양한 학생들이 있는 공립학교에 좋은 예술 프로그램이 기획되었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는 시모나 디너스틴. 그녀의 시작은 바흐였다. 위대한 연주자들이 처음으로 접하고 그 경이로움에 마지막에 다시 돌아오는 작곡가가 바흐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시간이 흐른 뒤 그녀가 연주하는 바흐는 어떤 모습일지 사뭇 기다려진다.

글 · 권기호 기자 | 사진 · Sony Music 제공

바흐에 대한 진실한 고민



디너스틴의 이번 음반을 듣고 있으면 마치 바흐가 인도하는 다양한 여행일정을 함께 따라가는 느낌이 든다. 여행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같은 수미상관을 이룬다. 피아노를 위해 편곡한 ‘컨타타’와 ‘코랄’을 첫 곡과 마지막 곡으로 선택

하면서, 명상적이고 너그러운 음색으로 차분히 말을 건네는가 하면 잔잔한 여운을 남기며 이야기를 마치기도 한다.

반면 여행의 중반에는 뾰족한 노정이 펼쳐진다. 단조와 d단조의 건반 협주곡을 좌우대칭으로 두면서 오케스트라와 만난 건반악기 음색 대비를 다채롭게 들려주다가, 가운데 하리 부분은 영국 모음곡으로 독립을 시키면서 피아노 스스로의 표현 역량을 홀로 단련하기도 한다. 이렇듯 사려 깊은 선곡과 배치는 앨범 전체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공명의 폭을 훌륭히 구현해 내었다. 이 연주자가 바흐의 음악을 두고 얼마나 진실하게 고민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영리하게 달성해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디너스틴은 ‘루바토’를 이르러 ‘자연스런 호흡’이라 밝히고 있다. 루바토에 관한 그녀의 독창적인 생각은 프레이징을 다루는 것에서부터 여실히 드러난다. 영국 모음곡의 사라방나 협주곡의 느린 악장에서 디너스틴의 멜로디 라인만 마치 현악기로 연주하는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악박을 진한 음색으로 처리한다든지, 아모자야투라 같은 비화성을 앞으로 길게 꺼내 강조하면서, 프레이징의 자질한 굴곡을 현악기가 표현하는 비브라토의 압력과 활이 줄을 넘나들며 만드는 공간치가 느껴질 만큼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빠른 악장에서 나타나는 논 레기토의 아티큘레이션도 같은 곡을 녹음한 캄프·포고엘리치·페리아어의 질감과 확연히 구별된다. 대개의 연주자는 논 레기토의 빠른 패시지를 연주할 때 건반역선의 스프링 탄력을 활용하면서 통통 튀는 터치를 선호하곤 한다. 하지만 디너스틴은 손끝과 건반에 마치 N극과 S극의 자석이 붙어있는 듯, 인력과 척력을 적절히 조화시킨 밀도 높은 터치를 구사하고 있다. 짧은 스타카토에 점성의 질감을 첨하는 것은 웬만한 공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듯 그녀의 프레이징과 더 나아가 전체적인 음악표현은 능수능란한 연사처럼 발음은 명확하되 강고고저를 거침없이 자유롭게 표현한다. 선곡과 배치에서부터 터치의 질감과 프레이징의 호흡에 이르기까지 디너스틴이 마련해준 바흐의 여행 패키지는 끝까지도 좋을 만큼 침의적이다. 음악을 대하는 그녀의 진실한 고민과 영리한 덕택일 것이다.

글 · 조은아(피아니스트)